

현대러시아어 相(aspect)의 담화기능

—배경이론에 대한 再考

이 인 영

0. 서 론

相性(aspectuality)은 언어에 따라 형태론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예를 들어 어휘적으로 표현되거나 의미론적으로만 그 파악이 가능하기도 하다.) 러시아어(그리고 대부분의 슬라브어들)는 다른 인구어와는 달리 시제(tense)의 단순화와 함께 相의 체계적인 형태론적 패러다임을 발전시켰다.¹ 즉 러시아어의 대부분의 동사는 하나의 동일한 어휘의미(lexical meaning)에 완료상(perfective aspect, 앞으로는 p),² 불완료상(imperfective aspect, 앞으로는 i)이라는 相의 차이만을 나타내주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짐으로써 소위 “쌍(aspectual pair)”을 형성한다(예: *otkryt'*^(p) vs. *otkryvat'*⁽ⁱ⁾ ‘to open’; *čitat'*⁽ⁱ⁾ vs. *pročitat'*^(p) ‘to read’). 쌍을 이루지 않는 경우에도 그 형태상 어느 한 相에 반드시 속한다.³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어에서는 일찍부터 相의 의미를 형태의미론의 차원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다. 이러한 형태론적 불변성(morphological invariance)에 대한 연구는 귀납적 방법론에 입각하게 되므로 연역적 방법론에 기반을 두어야 할 텍스트/담화 차원에서의 相의 기능에 대한 연구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면에서 Hopper의 배경이론적 접근은 커다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배경이론적 접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많

¹ K. Menges 교수에 의하면 애초에 인구어의 시제는 相에서부터 발전된 것이나 슬라브어의 경우 알타이어의 영향으로 다시 새로운 형태의 相을 발전시켰다. (口頭 교환)

² perfective를 관례에 따라 완료상이라고 번역했으나 이는 perfect와는 전혀 다른 의미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러시아어에는 perfect를 나타내는 형태론적 수단이 없음을 밝힌다.

³ 극히 드물게는 한 형태로써 두 가지 相을 다 지칭할 수 있다(예: *velet'* ‘to order,’ *ranit'* ‘to wound’). 이것들은 相이 아직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시기의 잔재들이다.

은 수정과 보완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은 이야기체(narrative)의 전경(foreground)/배경(background) 설정에 있어서 相이 하는 역할은 근본적으로 맥락의미(contextual meaning)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Hopper 가설을 보완하고자 한다.

1.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형태론적 불변성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문법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없이 되풀이되어 왔다. 전통문법에서는 그것을 각각 “점과 선(punctual vs. linear)” (Saussure, Meillet, Mazon) (Vinogradov 1972: 393), 혹은 “종결된 행위와 지속되는 행위”(Miklosich) (Forsyth 1970: 2)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의 오류는 다음과 같은 반증으로 쉽게 지적 된다. 우선, *postojal*⁽⁹⁾ ‘[he] stood [for some time]’은 완료상임에도 불구하고 “점”이 아니다. 둘째, *zapel*⁽⁹⁾ ‘[he] began to sing’도 완료상이나 “종결된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시작단계를 의미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점,” “종결된 행위,” 혹은 “결과”는 완료상의 원형적(prototypical) 의미이긴 하지만 독점적(exclusive) 의미는 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불완료상이 “종결된 행위”도 의미할 수 있는 한(예: Tolstoj pisał⁽¹⁰⁾ *Voinu i mir* ‘Tolstoj wrote *War and Peace*’) “선”이나 “지속”은 불완료상의 불변의미가 되지 못한다. 불변의미는 “모든 것을 포괄(all-encompassing, ambient)”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相의 불변의미는 상당히 추상화될 수 밖에 없다. 완료상의 불변의미는 “상황 전체가 한 덩어리로 포용되는 것”(Comrie 1976: 21) 혹은 “한 행위를 한 특정지점에서 보아 요약된 사건(event) 전체로 묘사하는 것”(Forsyth 1970: 8)으로 정해진다. Barentson의 “사건 단위체(event-unit)” (Barentson 1979: 270)나 Vinogradov의 “내적 경계(vnutrennij predel)” (Vinogradov 1972: 394) 개념도 광범위하게는 같은 부류의 정의로 볼 수 있다. 불완료상의 의미 설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Jakobson의 유무대립(privative opposition) 개념이 도입된다. 즉 완료상이 어떤 특정자질에 의해 유평적인 반면, 불완료상은 그 자질에 대해 무포적이다. 다시 말해서 불완료상은 그 자질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언어구조에 대한 체계성의 연구라는 차원에서 맥락에 의한 변형의미들(contextual variants)을 배제한 문법적 불변의미의 설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텍스트/담화 차원에서 보자면 불변의미의 발견은 한 주어진 텍스트/담화에서 무엇이 한 특정한 相의 선택을 유발시키는지, 즉 왜 이번에는 상황을 “한 덩어리”로 보며 또 왜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해석학적” 방법론은 외국인의

러시아어 相 습득의 난이도를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하며, 언어적 보편성 (linguistic universal)의 관점에서 다른 언어들의 相과의 보편성 추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불변의미 설정에서 배제되어지는 맥락의미들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2. 배경이론적 접근의 타당성과 문제점

담화에서 무엇이 한 특정한 相의 선택을 좌우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화자의 관점 (speaker's point of view)과 연결된다. 相이란 “한 상황의 내적 시간 구성요소 (temporal constituency)를 보는 여러가지 방법들(필자 방점)” (Comrie 1976: 3)이라는 Comrie의 정의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相이 언어외적 실제세계에서의 상황과는 독립적으로 화자의 주관적 시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의 동일한 현실에 대해 서로 다른 형태의 相을 갖는 두 가지 표현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3.1—3.3 참조). 언어외적 현실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보는 화자의 관점은 여럿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화자가 어떤 때는 이러한 관점을, 또 다른 때는 저러한 관점을 취하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Hopper는 相을 근본적으로 “처소-의미론적 (local-semantic)”이 아니라 “담화-화용론적 (discourse-pragmatic)”인 개념으로 파악한다 (Hopper 1982: 5). 그는 相이 담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메카니즘 (flow-control mechanism)” (Hopper 1979b: 220)으로 작용해서 이야기의 중심 플롯을 진전시키는 전경에서는 완료상이 사용되고, 플롯을 뒷받침해 주는 배경에서는 불완료상이 사용된다고 본다.

The perfective aspect is found mainly in kinetic sequential events which are central to the unfolding of the narrative. ... Imperfective aspect is used typically for backgrounding: situations, descriptions, and actions, which are simultaneous or overlapping with a perfective event; the distribution is closely parallel to the French use of imperfect and passé historique. (Hopper 1979a: 58)

The discourse ... imposes a perfective interpretation on foregrounded events. (Hopper and Thompson 1980: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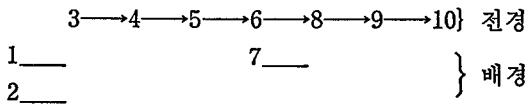
많은 경우 완료상과 전경이, 그리고 불완료상과 배경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다음 동화 “Petux i žernovcy ‘수탑과 멧돌’”의 일부만 보아도 분명히 나타난다.

1. Žil⁽⁶⁾ da byl⁽⁶⁾ sebe starik so starixoju, bednye-bednye!

2. Xleba-to u nix ne bylo⁽¹⁾;
3. vot oni poexali^(p) v les,
4. nabarli^(p) želudej,
5. privezli^(p) domoj
6. i načali^(p) est'.
7. Dolgo li, korotko li oni eli,⁽¹⁾
8. tol'ko staruxa uronila^(p) odin želud' v podpol'e.
9. Pustil^(p) želud' rostok
10. i v nebol'soe vremja doros^(p) do polu.

1. 아주 아주 가난한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¹⁾
2. 그들은 빵이 없었어요. ⁽¹⁾
3. 그래서 그들은 숲으로 가서 ^(p)
4. 도토리를 따고 ^(p)
5. 집으로 가져와서 ^(p)
6. 먹기 시작했어요. ^(p)
7. 얼마동안 먹다가 ⁽¹⁾
8. 할머니가 도토리 하나를 지하실로 떨어뜨렸어요. ^(p)
9. 도토리는 싹을 내고 ^(p)
10. 곧 마루까지 자랐어요. ^(p) (필자 번역)

첫머리 1, 2(불완료상)은 이야기의 배경이 될 뿐이고, 3, 4, 5, 6(완료상)에서 본격적으로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해서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사건의 나열이 계속된다. 사건의 진전은 8(완료상)로 이어지며 7(불완료상)은 8의 사건과 동시적인 배경행위일 뿐이다. 다시 사건은 9, 10(완료상)으로 진전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대러시아어 相에 대한 Hopper의 가설이 고대러시아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교회슬라브어(Old Church Slavonic)에서의 아오리스트(aorist)와 임퍼펙트(imperfect)에 대한 Lunt의 설명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The Aorist thus functions largely as the story-telling device which presents a chain of events, while the imperfect gives the background events or stops to concentrate on an action being performed at a certain moment.

(Lunt 1974: 137)

Hopper의 가설과 Lunt의 설명을 배합시켜 보면 고대러시아어에서 아오리스트와 임퍼펙트가 없어지면서 그것들의 기능이 각각 완료상과 불완료상으로 흡수되었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러시아어를 포함하여) 슬라브어에서 아오리스트와 임퍼펙트가 있던 시기에 이미 완료상과 불완료상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잔재로 불가리아어에서는 지금도 이 두 다른 차원의 시상들이 공존하고 있다. 즉, 교회슬라브어, 고대러시아어, 현대불가리아어에서는 불완료상에 의한 아오리스트나 완료상에 의한 임퍼펙트가 가능하다. 아오리스트와 임퍼펙트가 인구조어의 相 개념에서 발달되어 나온 것인 만큼 이것들은 과거시제에서의 관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완료·불완료상이 안에서부터 보는 관점이라면 이것들은 밖에서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해서 밖에서 보아 “한 덩어리”가 안에서 보아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불완료상 아오리스트), 또한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이 경우 완료상 임퍼펙트) 역설이 현실화된다. 현대러시아어에서는 “외적 관점”이 없어지면서 “내적 관점”만 남고 “외적 관점”은 (어휘의미를 포함해서) 맥락의미에 의해서만 파악된다.

모든 아오리스트가 완료상으로, 그리고 모든 임퍼펙트가 불완료상으로 흡수된 것이 아닌 이상 러시아어에서의 相을 완료상, 불완료상이라는 개념 없이 아오리스트(*passé simple*)와 임퍼펙트를 갖는 불어에서의 시상과 동질적으로 다루는 것은 지나친 도식화라고 할 수 있다. 아오리스트와 임퍼펙트가 각각 전경, 배경과 강하게 연관된다면 완료상 임퍼펙트(와 그 잔재) 그리고 불완료상 아오리스트(와 그 잔재)는 각각 배경, 전경에 가깝다고는 할지언정 그 반대는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Hopper 가설에서 또 한 가지 명확히 하여야 할 점은 바로 전경화(*foregrounding*)의 정의에 있다. 전경화는 일반적으로 중심 플랫폼을 진전시키는 필수적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중요한 점은 Hopper와 Thompson 가설에서도 이미 명시한 대로 그것이 어느 한 형태론적, 통사론적, 혹은 의미론적 자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의 여러 자질들의 총집합체이며, 배경과는 분리된 개별단위체(*discrete unit*)로서가 아니라 일련의 연속체(*continuum*)의 한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Hopper and Thompson 1980: 284). 따라서 배경이론은 모국어 사용자의 직관을 중시하는 반면 형식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우선 전경/배경의 지표(*index*)적 역할을 하는 자질들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예로 배경의 지표로 되어 있는 피동구문⁴

⁴ Hopper and Thompson (1980: 99)은 영어에서 피동구문이 배경에서 많이 일어남을 지적하고 있다. Wallace (1982: 210)도 인구어에서는 그러하다고 동조한다.

은 전경의 지표로 되어 있는 완료상을 선호한다. 이 경우 전·배경의 정도 (degree of grounding) 측정을 위해서는 Chvany의 “현재도 측정법 (saliency scale)”처럼 각 자질을 0, 1, 2, 3, 4 등의 정도로 나누고 자질마다의 결과를 합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1) 어떤 자질들이 유관 (relevant)한가라는 문제와 (2) 자질들 간에 위계가 있을 수 있는 경우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Hopper는 플롯의 연쇄성 (sequentiality)과 전경을 동일시 하는데 연쇄성은 전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긴 하나 전경과 동일하지는 않다. Chvany가 지적하듯이 맥락에 의해서 연쇄성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되기도 하고 연쇄성 없이 전경이 되기도 한다. Chvany는 맥락에 의해 불완료상이 전경이 되는 단적인 예로서 Tolstoj의 *Tri medvedja* ‘곰 세 마리’의 일부를 들고 있다.

But the bears *came* home hungry /prišli^(p) /
and *wanted* to have dinner. /zaxotel^(p) /
The big bear *took* his bowl, /vzjal^(p) /
looked inside /posmotrel^(p) /
and *roared* in a terrible voice: /zarevel^(p) /
WHO HAS BEEN EATING FROM MY BOWL?! /xlebal⁽ⁱ⁾ /

Though the verb *xlebal/has been eating* is imperfective past, this speech eclipses all earlier foreground and it would do so even without graphic help from Tolstoy, whose original is printed in huge capital letters. The ability of direct speech to eclipse formerly backgrounded material demonstrates the relative, context-dependent nature of foregrounding. (Chvany 1984: 18)⁵

흥미롭게도 위의 예에서 문제가 되는 “xlebal⁽ⁱ⁾”이 코대러시아어나 불가리아어에서는 불완료상 아오리스트 (혹은 퍼펙트)로 표현된다. 이렇게 볼 때 “xlebal⁽ⁱ⁾”이 전경이 되는 것은 Chvany가 지적하듯 시각적 강조나 직접화법에 의해서이지만 “xlebal⁽ⁱ⁾”이 입퍼펙트로 표현되는 문맥에서보다 전경이 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위의 “xlebal⁽ⁱ⁾”과 같이 맥락의미와 원형의미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Chvany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맥락이 상관 전·배경간의 상관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 보코자 한다. 이

⁵ Chvany (1984: 18)에서 문제되는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Kto xlebal⁽ⁱ⁾ v moej čaške (i vse vyxlebal^(p))? ‘Who has been eating from my bowl (and supped it all up)?’ (Forsyth 1970: 85).

러한 목적을 위해서 맥락의미와 갈등을 보이는 相의미를 편의상 주변 의미 (marginal meaning)라고 부르겠다 (예: “중결”맥락의 불완료상, “지속,” “반복”맥락의 완료상).

3. “주변의미”의 사례 분석

3.0. 용어의 정의

분석에서 쓰일 가장 중요한 용어들인 “사건(event),” “과정(process),” “상태(state)”는 Vendler와 Comrie의 개념들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⁶

- 사건(event) : [+Dynamic], [+Closed] : |→
 과정(process) : [+Dynamic], [-Closed] : →
 상태(state) : [-Dynamic], [-Closed] : —

이 세 기본용어들은 각기 하부개념들을 갖는데 이 하부개념들의 정의는 Kučera의 모델을 따르겠다 (Kučera 1983: 176-78).

사건(event)

- 달성(achievement) : 예) The climber reached the summit.
 완수(accomplishment) : 예) Peter wrote a book.
 非텔릭(atelic) : Slavic po-/pro-verbs 예) pogovorit' 'to talk for a while'

과정(process)

- 목표의 근접(end-in-sight)〈달성의 발단〉 : 예) The climber is reaching the summit.
 텔릭(telic)〈완수의 가능성〉 : 예) Peter is writing a book.
 非텔릭(atelic)〈행위(activities)〉 : 예) He is playing tennis.

상태(state)

- 정태(stative) : 어휘의미화 예) to know, to love
 습관(habits)
 열려진 연속
 과정의 연속 : 예) Paul speaks Russian.
 사건의 연속 : 예) He tells the truth once a year.
 量的 상태 : 소위 “반복사(frequentatives)” 예) byvat' 'to be'

⁶ “Dynamic”이라는 자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의 각 국면을 동질적으로 보는가 이질적으로 보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3. 1. “중결” 맥락의 불완료상

- (1) Vy pisali⁽ⁱ⁾ ètu knigu?—Da, pisał.⁽ⁱ⁾ ‘Did you write⁽ⁱ⁾ the book?—Yes, I did⁽ⁱ⁾’

불완료상이 “중결”을 의미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불완료상의 문법적 무표성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예로서 소위 “단순한 外延(simple denotation)” 혹은 “행위사실의 진술(konstatacija fakta dejstvija)”라는 명제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다. “중결”이라는 맥락의미는 변하지 않는 채로 (1)은 완료상을 사용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대체될 수 있다.

- (2) Vy napisali^(p) ètu knigu?—Da, napisal.^(p)
‘Did you write^(p) the book?/Did you finish writing^(p) the book?—Yes, I did.^(p)’

(1)과 (2)는 맥락의미에는 변화없이 화자의 관점만 달라진 것을 보여 준다. 어느 경우이나 책은 이미 다 쓰여져 출판되어 있다. 그러나 (1)의 경우 화자의 관심은 듣는이에게 책을 쓰는 행위가 일어났었는지에 대한 사실에만 집중되어 있다. 반면 (2)에서는 화자의 초점이 행위의 유·무가 아니라 책을 다 썼는지라는 결과에 맞추어진다. (2)는 명실공히 [+Dynamic], [+Closed]이므로 “사건(event),” 그중에서도 “완수(accomplishment)”이다. 그런데 (1)은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3. 0.에 인용한 Kučera의 모델에 적용시켜 보더라도 그것은 이미 완수되었으므로 완수의 가능성만을 갖는 “과정(process)”으로 볼 수는 없으며, 동시에 “완수”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완수된 “사건(event)”으로 보는 것도 적합치 않다. Kučera 모델의 이 같은 부적당성은 [0 Closed]라는 개념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즉 시간적 닫힘성이 (1)에서는 유관한 요인(relevant factor)가 아니다. 바로 이렇게 시간성이 무관한 경우를 Vendler는 “사실(fact)”이라고 부른다. (1)과 (2)는 “사실” 對 “사건”으로 대조된다. (1)의 “pisali⁽ⁱ⁾”는 [+Dynamic], [0 Closed]를 가짐으로써 과거진행, 즉 [+Dynamic], [-Closed]인 다음 예의 “pisali⁽ⁱ⁾”와 구분된다.

- (3) Kogda ja vošel^(p) v komnatu, vy pisali⁽ⁱ⁾ pis'mo.
‘When I entered^(p) the room, you were writing⁽ⁱ⁾ a letter.’

[0 Clsd]는 [+Closed]에 비해 행위의 결과에 대한 “주장(assertion)”이 부재하거나 그 “주장”의 정도가 현저하게 낮다. 이러한 “주장”의 부재는 그 결과와 연결되는 (많은 경우 그 결과가 유발시키는) 다음 행위로의 시간적 연쇄를 단절 혹은 지연시킨다.

- (4) Vy pročitali^(p) ètu knigu?—Da, pročital.^(p)
 A vy ee vernuli^(p) v biblioteku?—Da, vernul.^(p)
 ‘Did you read^(p) the book?/Did you finish reading^(p) the book?—Yes,
 I did.^(p)—And did you return^(p) it to the library?—Yes, I did.^(p)’

- (5)?? Vy čitali⁽ⁱ⁾ ètu knigu?—Da, čital.⁽ⁱ⁾
 A vy ee vernuli^(p) v biblioteku?—Da, vernul.^(p)
 ‘Did you read⁽ⁱ⁾ the book?—Yes, I did.⁽ⁱ⁾—And did you return^(p)
 it to the library?—Yes, I did.^(p)’

(4)는 읽은 행위에 이어 돌려 주는 행위가 뒤따르는 자연스러운 연쇄성을 형성한다. 반면 (5)는 아주 부자연스럽거나 거의 기대할 수 없는 텍스트이다. (러시아어의 相의 차이가 증성화된 영어 번역에서는 그러한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음을 주목하라.) “Vy čitali⁽ⁱ⁾ ètu knigu?” 다음에서는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행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한 평가와 같은 상태에 대한 질문이 기대된다. 다음 텍스트는 완전히 자연스럽다.

- (6) Vy čitali⁽ⁱ⁾ ètot roman?—Da, čital.
 A kak vam nravitsja⁽ⁱ⁾ geroj ètogo romana?—Ne očen.’
 ‘Did you read⁽ⁱ⁾ the novel?—Yes, I did.⁽ⁱ⁾—And how do you like⁽ⁱ⁾
 the hero of the novel?—Not very much.’

“중결”이라는 맥락에서 [+Closed]대신 [0 Closed]의 사용은 “사건(event)”을 “非사건(non-event)”화 함으로써 연쇄성을 늦추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불완료상에 의한 연쇄성의 단절은 다음 예들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 (7) Starik opjat’ ušel^(p) v les na rabotu, a kot unes^(p) emu est.’
 Starik, uxodja, zakazyval⁽ⁱ⁾ petuxu bereč’ dom i ne vygljadyvat’ v okoško. (*Kot, petux i lisa*)

‘노인은 다시 숲으로 일하러 갔고^(p), 고양이는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 갔습니다.^(p) 노인은 떠나면서 수탉에게 집 잘 지키고 창문 안으로 들여다 보지 말라고 일렀습니다⁽ⁱ⁾ (『고양이, 수탉 그리고 여우』)

위의 예에서 완료상을 사용한 첫 두 문장은 시간적으로 연속되지만 불완료상을 사용한 마지막 문장은 시간적으로 후퇴해서 첫 문장의 시간으로 되돌아 간다.

담화 차원에서의 연쇄성의 단절은 문장 차원에서의 “화제-축점(topic-

focus)” 구조와 흥미로운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연속성의 단절/지연은 서술 부 이의 부분의 초점(focus)과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 (Hopper 1979b: 215). 전형적인 예로 주어부분의 초점화를 들 수 있다.

- (8) Kto ubiral⁽⁴⁾ komnatu?—ubiral⁽⁴⁾ Ivan.
 ‘Who cleaned⁽⁴⁾ the room?—Ivan did.’

여기서 중요성은 “누가” 방을 치웠는가에 있지 “치웠다”는 행위에 있지 않다. 이것을 다음의 완료상과 비교해 보자.

- (9) Kto tak xorošo ubral^(p) komnatu?
 ‘Who cleaned^(p) the room so well?’

(9)의 경우 중요성은 “누가”와 “잘 치워진 결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나 오히려 후자에 더 그 비중이 가게 되기도 한다. 이제 좀더 넓은 문맥에서 相과 초점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동화 “Žar-ptica i Vasilisa-carevna ‘불새와 왕녀 바실리사’”에서 射手가 불새의 깃털을 찢지 말라는 자신의 말(馬)의 조언을 듣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게 되자 후회하는 장면을 살펴 보자.

- (10) Vot beda, tak beda! —dumaet on. —Ax, začem ja bral⁽⁴⁾ zolotoe pero žar-pticy? Začem konja ne poslušalsja^(p)?

‘아유, 큰일났구나! —그는 생각한다. —아, 어째서 불새의 황금 깃털을 집었었던고⁽⁴⁾? 어째서 말의 조언을 듣지 않았던고^(p)?’

첫번째 “Začem ...” 문장에서 “bral⁽⁴⁾”은 Forsyth가 말하는 “비강제 連辭(unstressed copula)” (Forsyth 1970: 84)의 수준으로 떨어진다. 찢는 행위가 있었음은 이미 전제된(presupposed) 사실로서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초점은 “어째서”에 떨어진다. 그러나 두번째 “Začem ...” 문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두 문장은 억양 면에서도, 어순 면에서도 다르다. 두번째 문장에서는 동사가 맨 뒤에 놓여짐으로써 강조되는 반면, 의문사는 반복에 의해 새로움을 잃는다.

결론적으로, “중결” 맥락에서의 불완료상의 사용은 “사건”의 “非사건”화를 통해 연속성을 늦춤으로써 배경으로의 경향성을 부여하는 메카니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완료상의 사용이 전경을 이룸에 반해 불완료상의 사용은 배경을 이룬다는 소리는 결코 아니다. 텍스트의 어느 한 부분이 전경인가 배경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다른 자질들을 고려한 후에야 결정될

문제이다. 단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相 이외의 다른 모든 자질들이 동일하다면 “중결” 맥락에서 불완료상의 사용은 완료상의 사용보다 전경화의 현저도가 낮다는 사실이다.

3. 1. 0. 소위 “왕복행위(two-way action)”에 대하여

“중결” 맥락에서 불완료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동사들의 주류는 “완수(accomplishment)”가 가능한 어휘군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달성(achievement)”이 가능한 어휘군은 [+Closed]로의 강한 경향성 때문에 “중결” 맥락에 불완료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11) *Kto naxodil⁽ⁱ⁾ ključ? *Who found⁽ⁱ⁾ the key?’

(11)의 相을 바꾸면 완벽한 문장이 된다.

(12) Kto našel^(p) ključ? ‘Who found^(p) the key?’

그런데 “달성”가능 동사들 중에서도 그 어휘의미가 일단 결과를 달성한 후 그 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는 것, 즉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면 불완료상으로 써 “중결”을 의미할 수 있다.

(13) Kto prixodil⁽ⁱ⁾ segodnja? ‘Who came [and went back]⁽ⁱ⁾ today?’

이처럼 일단 “달성” 혹은 “완수”된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동사어휘군을 통틀어 소위 “왕복행위 동사군”이라고 부른다: 예) *otkryval*⁽ⁱ⁾=*otkryl*^(p)+*zakryl*^(p) ‘opened⁽ⁱ⁾=opened^(p)+closed^(p)’; *vxodil*⁽ⁱ⁾=*vošel*^(p)+*vyšel*^(p) ‘entered⁽ⁱ⁾=entered^(p)+went out^(p)’; *vključal*⁽ⁱ⁾=*vključil*^(p)+*vyključil*^(p) ‘switched on⁽ⁱ⁾=switched on^(p)+switched out^(p)’ (Forsyth 1970: 79). 그러므로 “왕복행위”란 대과거적 “중결”이라고 볼 수 있다.⁷ “왕복행위”는 대과거적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시간적 연쇄성을 단절시킨다.

(14) Ivan-carevič prixodil,⁽ⁱ⁾ Mar’ju Morevnu s soboj vzjal.^(p) (*Mar’ja Morevna*)

‘이반왕자가 왔었지요,⁽ⁱ⁾ 마리아 모레브나를 데리고 갔어요^(p)
(「마리아 모레브나」)

이것을 다음과 비교해 보자.

(15) Ivan-carevič prišel,^(p) Mar’ju Morevnu s soboj vzjal,^(p) i ver-nulsja.^(p)

⁷ 이 그룹은 한국어의 “있었”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단절상”임을 나타내주는 형태론적 요소가 러시아어에는 부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

‘이 반왕자가 와서^(b) 마리아 모레브나를 데리고^(b) 돌아갔지요.’^(b)

(15)가 연속되는 세 사건인 반면, (14)에서 “prixodil^(a)”과 “vzjal^(b)”은 연속되는 두 사건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은 “vzjal^(b)” 하나 뿐이고 “prixodil^(a)”은 그 사건을 뒷받침해 주는 사실일 뿐이다. 즉 (15)의 세 사건은 동등한 반면, (14)에서는 비중이 “vzjal^(b)”에 놓여진다.

결론적으로 “왕복행위”라는 맥락의미는 어휘의미에 기초한 특수한 형태의 “종결”로 볼 수 있다. 부정문의 경우 (예: On ne prixodil^(a) ‘he didn’t come^(a)’) “왕복행위”의 부정과 “단순한 외연”에 대한 부정이 중성화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3. 2. “지속”맥락의 완료상

(16) On postojal^(b) tam dva časa. ‘He stood^(b) there for two hours.’

(17) On prožil^(b) tam desjat’ let. ‘He lived^(b) there for ten years.’

(18) On prorabotal^(b) celyj den’. ‘He worked^(b) the whole day.’

“지속”의 맥락은 근본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상태”나 “과정”을 나타내는 어휘의미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속”은 일반적으로 불완료상의 원형의미로 받아들여지며 Comrie도 “지속”을 “습관”과 함께 불완료상의 하부의미로 보고 있다(Comrie 1976: 25). (16), (17), (18)은 각각 다음과 같이 불완료상으로 대치되어도 전달되는 의미에 차이가 없다.

(19) On stojal^(a) tam dva časa. ‘He stood^(a) there for two hours.’

(20) On žil^(a) tam desjat’ let. ‘He lived^(a) there for ten years.’

(21) On rabotal^(a) celyj den’. ‘He worked^(a) the whole day.’

그런데 화자의 관점에 따라 “지속”은 반드시 [-Closed]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닫혀진 ([+Closed]) 지속”은 지속을 의미하는 어휘에 “시간적 제한,” 혹은 “지속”이라는 진행사(procedural, Aktionsart)인 접두사 po-, pro-를 덧붙임으로써 이루어지는 완료상에 의해 표현된다. 완료상이 진행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지속”이라는 어휘의미를 갖는 동사들이 “쌍”으로서의 완료쌍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진행사는 어휘차원의 문제로서 문법차원의 문제인相과는 구별되는 범주로 다루어진다. 그런데 po-, pro-의 경우에는 이 접두사가 붙지 않는 불완료상에서의 어휘의미와 매우 유사하며, 시간부사를 동반 혹은 전제하는 제한된 맥락에서만 사용되므로 “쌍(aspectual pair)”

의 개념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불완료상과 상호 교환이 가능한 완료상으로 보겠다.⁸

“상태,” “과정,” “사건”이 각각 —, —→, !—→로 도식화된다면 “달려진 상태”(예: po-/pro-stojal)는 !—→, 즉 [-Dynamic], [+Closed]로 표현될 수 있다. “달려진 과정”(예: po-/pro-rabotal)은 [+Dynamic], [+Closed]이므로 그 정의상 “사건”에 속한다. 그러나 po-, pro- 진행사는 앞서 밝힌 대로 제한된 맥락에서만 나타나며, 항상 1항술어(one-place predicate)로서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원형적 “사건” 즉 “달성”이나 “완수”보다는 한 단계 낮은 차원에서의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3.0.에 인용한 Kučera의 모델에서 이 한 단계 낮은 사건은 “非텔릭(atelic event)”으로 지칭된다.

“상태”나 “과정”의 [+Closed]화가 가능할 경우 그것은 담화차원에서 어떤 기능을 갖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음 예문들을 살펴 보자.

- (22) Už on *sidel*,⁽¹⁾ *sidel*,⁽¹⁾ celuju noč' *prosidel*,⁽⁹⁾ xvost ego i primorozilo⁽⁹⁾; poproboval⁽⁹⁾ bylo pripodnjat'sja: ne tut-to bylo.⁽¹⁾ (*Lisička-sestrička i volk*)

‘그는 앉아있고⁽¹⁾ 또 앉아있고⁽¹⁾ [결국] 밤새 앉아있었고,⁽⁹⁾ 그의 꼬리는 얼었다⁽⁹⁾;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⁹⁾ 되지가 않았다.⁽¹⁾’ (「여우 누나와 늑대」)

- (23) a. Vot mužik *dumal*,⁽¹⁾ *dumal*,⁽¹⁾ vzjal⁽⁹⁾ kota, posadil⁽⁹⁾ v mešok, zavjazal⁽⁹⁾ i pones⁽⁹⁾ v les. (*Kot i lisa*)

농부는 생각하고⁽¹⁾ 생각하다가⁽¹⁾ 고양이를 잡고는⁽⁹⁾ 자루에 넣어서⁽⁹⁾ 묶고⁽⁹⁾ 숲으로 가져갔다⁽⁹⁾’ (「고양이와 여우」)

- b. Vot carevič *podumal*⁽⁹⁾ *podumal*⁽⁹⁾ i proč' pošel.⁽⁹⁾ (*Košei Bessmertnyj*)

‘왕자는 생각에 생각을 하고는⁽⁹⁾ 멀리 떠났다⁽⁹⁾’ (「不死의 코웨이」)

- (24) a. Opjat' sel⁽⁹⁾ carevič na kamen', *plakal*,⁽¹⁾ *plakal*,⁽¹⁾ da i usnul.⁽⁹⁾ (*Mar'ja Morevna*)

‘왕자는 다시 들위에 앉아서⁽⁹⁾ 울고⁽¹⁾ 울다가⁽¹⁾ 잠이 들었다⁽⁹⁾’ (「마리아 모레브나」)

⁸ 이 점에 대해서는 Miller (1972: 222)와 Forsyth (1970: 38)도 등조하고 있다.

- b. Vorotilsja^(b) starik domoj, *poplakal*^(b)-poplakal^(b) s baboju, potužil^(b)-pogoreval^(b) o svoej bednosti i opjat' povel^(b) syna v gorod. (*Xitraja nauka*)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서, ^(b) 할머니와 한동안 울고, ^(b) 자신의 가난에 대해 한동안 슬퍼하고는 ^(b) 다시 아들을 도시로 데려갔다. ^(b)’ (『교활한 학문』)

위 예문들은 공통적으로 동사의 반복을 통해 지속이라는 맥락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2)에서 앉아 있는 상태가 계속되다가 다시 한 덩어리로 요약된다. 같은 어휘를 세번 반복함으로써 “오랜 시간의 지속”이라는 효과를 얻기 위한 이 기법은 중어법(tautology)으로 볼 수 있으며 앞의 “sidel,⁽ⁱ⁾ sidel⁽ⁱ⁾”은 텍스트 의미상 잉여적이다. “prosidel^(b)” 대신 “sidel⁽ⁱ⁾”을 잉여적으로 보는 것은 뒤따라 나오는 완료상들과의 병행법과 연쇄성 면에서 “prosidel^(b)”이 “sidel⁽ⁱ⁾”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sidel,⁽ⁱ⁾ sidel,⁽ⁱ⁾... prosidel^(b)”은 한 행위단위체를 이룬다. 불완료상이 뒤따라 나오는 완료상과 한 행위단위체를 이룬 (23a)와 (24a)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23a)에서 생각하는 상태가 계속되다가 마침내 그 생각이 고양이를 잡는 것으로 낙착된 것이며 이것은 마치 지속적인 한 동일한 행위가 발전되어서 얻어진 결과처럼 나타나진다. “dumal,⁽ⁱ⁾ vzjal^(b) kota”는 이렇게 해서 한 행위 단위체로 간주되고 “vzjal^(b)” 이후 사건은 매우 신속하게 진전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3b)에서는 왕자가 떠난 행위가 반드시 생각을 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생각한 행위와 떠난 행위가 각기 독립적인 행위단위체들을 형성한다. (24)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4a)에서는 울다가 울다가 점차 잠이 든 것이 하나의 행위단위체를 형성하는 반면, (24b)에서는 운 행위는 아들을 데려간 행위와는 시간으로 선행한 개별적 단위체로서 작용하다.

한 행위단위체는 다음 단위체와 시간적 연쇄를 이룬다는 면에서 “지속”맥락의 완료상은 불완료상보다 이야기의 연쇄성을 높여 주며 그런 의미에서 전경으로의 경향성을 띤다. 그러나 다른 현저도 자질들이 다 같을 경우 “지속” 맥락의 완료상은 “완수”나 “달성”을 나타내는 완료상보다 전경화의 현저도가 떨어진다. (23b)를 예로 들어 보면 확실해진다: “podumal^(b)”과 “pošel^(b)”은 동일한 정도의 현저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pošel^(b)”이 더욱 현저하게 전경으로 나타나지는 반면 “podumal^(b)”은 그보다 약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지속” 맥락의 완료상은 불완료상을 사용한 경우보다 전경으로의 현저도를 높이기 위한 메카니즘일 뿐, 그 자체가 전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3.3. “반복” 맥락의 완료상

(25) On četyre raza pocelovalsja^(p) s nej. ‘He kissed^(p) her four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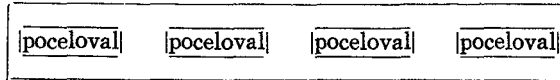
(26) On četyre raza celovalsja⁽ⁱ⁾ s nej. ‘He kissed⁽ⁱ⁾ her four times.’

“반복”은 화자의 관점에 따라 “반복되는 다수의 행위들”로 볼 수도 있고 ((26)의 경우), “그러한 다수의 행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으로 볼 수도 있다((25)의 경우). 위의 예의 번역에서 보여지듯이 영어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반복”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이중적임은 다음 Mourelatos의 지적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He knocked on the door three times” may mean that there was one knock on the door on three different occasions, or it may mean that there were three knocks on one single occasion. (Mourelatos 1981: 205)

따라서 (25)와 (26)은 각각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27) poceloval četyre raza



(28) celoval četyre raza



(28)이 “poceloval ‘kissed’”라는 “사건(event)”의 네번에 걸친 열거임에 비해 (27)은 “poceloval”이라는 하부 구조들의 네번에 걸친 반복을 한 단계 위에서 요약하는 구조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맥락에서의 완료상의 의미를 흔히 “요약적 의미(summernoe značenie)”라고 부른다.

“반복”은 하부구조를 갖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종결”이나 “지속”보다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 반복되는 개별 사건은 [+Closed]이지만 전체구조는 [-Closed]일 수도 있고((28)의 경우), [+Closed]일 수도 있다((27)의 경우). 교희슬라브어나 고대러시아어, 불가리아어에서의 완료상 임퍼펙트가 바로 이런 이중성을 잘 보여 준다. Comrie와 Lunt에 의하면 완료상 임퍼펙트는 완료상 아오리스트로 이루어진 개별 하부구조들의 반복에 의해 형성된다(Comrie 1976: 31, Lunt 1974: 137).

[+Closed]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즉 “닫혀진 반복”은 반복의 횟수를 알리는 특정한 수량부사(quantifying adverb)를 동반하

며,⁹ 이 반복은 시간적 간격없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 원칙이다.

(29) On pročítal^(p) pis'mo neskol'ko raz. 'He read^(p) the letter several times.'

(30) *On každyj den'/inogda/často pročítal^(p) pis'mo. '*He read^(p) the letter everyday/sometimes/often.'

(30)이 불가능함은 부사들의 개념상 시간적으로 단혀진 것으로 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사들과는 불완료상이 쓰여진다.¹⁰

(31) On každyj den'/inogda/často čítal⁽ⁱ⁾ pis'mo.
'He read⁽ⁱ⁾ the letter everyday/sometimes/often.'

제한없이 모든 “반복”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완료상이 “반복”맥락에서는 무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완료상에 의한 “단혀진” 반복은 왜 존재하는가? 다음의 예를 보자.

(32) Rajzdravskij <Moskvič> vybralsja^(p) na dorogu, neskol'ko raz *morgnul*^(p) krasnymi ogon'kami, slovno proščajas,' rvanulsja^(p) i srazu isčez^(p) za povorotom. 'The Regional Medical Board's 'Moskvich' entered^(p) the main road, winked^(p) its red lights several times as if in farewell, shot^(p) forward and immediately disappeared^(p) round the bend.' (Forsyth 1970: 161)

반복을 나타내는 “*morgnul*^(p)”은 플롯을 신속히 진전시키는 일련의 완료상에 의한 “사건”들과의 병행법에 의해 유발되며 자신도 플롯의 연쇄성에 기여한다. 이것을 불완료상 “*morgal*⁽ⁱ⁾”로 바꾸어 놓아도 텍스트의 의미 전달에는 달라짐이 없지만 플롯의 연쇄성이 그 부분에서는 지연된다. “반복”맥락에서의 완료상이 전경으로의 현저도를 높인다는 사실은 다음 예에서 특히 명확하게 나타난다.

(33) [Soldat] prišel^(p) vo dvorec. Car' sprašivaet^(i, present): <Začem,

⁹ “pozapirat’⁽ⁱ⁾ ‘to lock one after the other’,” “povytaskivat’⁽ⁱ⁾ ‘to drag out one after the other’” 등은 “반복”이라는 진행사에 의해 이미 어휘의미에 반복성이 포함되므로 통사차원에서 이같은 제한이 뒤따르지 않는다. 이러한 단어들은 “쌍”을 이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¹⁰ 이 경우 “čítal⁽ⁱ⁾”외에 “pročityval⁽ⁱ⁾”도 가능하다. “pročityval⁽ⁱ⁾”은 반복되는 행위 하나하나가 각기 다 “한 덩어리”임, 즉 “pročítal^(p)”임을 특히 강조할 때 쓰인다.

soldat?)—〈Tak i tak, ... prišel^(b) posmotret'!〉—〈Nu, smotri).
Soldat tri raza obošel^(b) krugom carja, vse ogljadyval.⁽ⁱ⁾ (*Mudrye
otvety*)

‘[병사는] 궁전에 왔습니다.^(b) 황제가 묻습니다^(i, pres): 〈어떤 일로 왔는고, 병사여?〉—〈이러저러해서요, ... [폐하를] 뵈러 왔습니다^(b)!〉—〈그래, 보거라〉. 병사는 황제 주위를 세번 돌고^(b) 전부 살펴 보았습니다⁽ⁱ⁾’ (「현명한 대답들」)

살펴 보는 행위는 이미 전제된 낱은 정보로서 (3.1.의 경우에 해당) 초점을 받지 못하는 반면, 주변을 도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다음 행위로의 연속을 기대하게 한다. “ogljadyval⁽ⁱ⁾”은 쉽게 副動詞(verbal adverb)로 (“ogljadyvaja⁽ⁱ⁾ ‘살펴 보면서’”) 대체할 수 있는 반면, 거꾸로 “obošel^(b)”을 부동사로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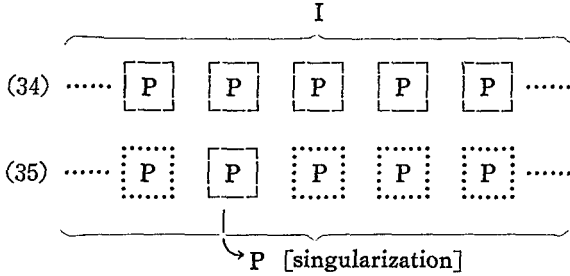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반복”의 개별적 하부구조가 [+Dynamic]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부]구조에서는 모든 국면이 동질적이라는 점에서 [-Dynamic]으로 보아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완료상에 의한 “반복”에서는 상부구조가 “열려진 반복([-Dynamic], [-Closed])”이 되어 “상태”에 가까워지고 완료상에 의한 “반복”에서는 상부구조가 “닫혀진 반복([-Dynamic], [+Closed])”이 되어 “닫혀진 상태(closed state)”에 가까워진다. “상태” 혹은 “닫혀진 상태”가 “된다”고 하지 않고 “가까워진다”라고 한 것은 [+Dynamic]을 기저로 하는 [-Dynamic]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Dynamic]인, 즉 어휘적으로도 소위 “정태동사(stative verb)”에 속하는 “상태”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반복에 의한 “닫혀진 상태”는 그런 의미에서 “지속”맥락의 완료상이 보이는 그것과 구별된다. 따라서 완료상에 의한 “반복”은 “완수”나 “달성”보다는 현저도가 낮으며 동시에 완료상에 의한 “상태”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다.

3.3.0. “습관”맥락의 현재시제 완료상에 대하여

“습관”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예: On ee znaval.⁽ⁱ⁾ ‘He used to know her’) 대부분 “반복”의 하부 개념에 속한다. 상태를 표시하는 어휘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습관”이 “상태”에 속함은 이미 Vendler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Vendler 1967: 108). “습관”이 근본적으로 [0 Time]이라는 점에서 [+Dynamic]의 반복이 상부구조에서는 [-Dynamic]으로 모아짐이 확실하다. 바로 이 [0 Time] 자질 때문에 상부구조의 [+Closed]는 거의 불가능하다.

¹¹ 러시아어에서 본 동사의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나타내는 부동사는 완료상으로부터만 가능하다. 완료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부동사는 본동사의 행위를 선행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Closed]가 되거나 (이 경우 불완료상) 아니면 반복되는 한 하부행위를 예시적으로 내세워 전체를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상).



중요한 점은 후자의 경우 시간이 유관한 요인이 아니므로 과거문맥에서도 무표적 시제인 현재시제가 사용된다는 사실이다.¹²

- (36) Vyjdet, (p.pres.) byvalo, (i.past) Krošečka-Xavrošečka v pole, obni-
met (p.pres.) svoju rjabuju korovu, ljažet (p.pres.) k nej na šejku i ras-
skazyvaet, (i.pres.) kak ej tjažko žit'-poživat.' (Krošečka-Xavrošečka)
'크로셰츠키-하브로셰츠키는 들로 나와서 (p.pres.) 자신의 얼룩소를
끌어 안고 (p.pres.) 그 소의 목에 기대고는 (p.pres.) 자기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말하곤 (i.pres.) 했다. (i.past)' (「크로셰츠키-하브로
셰츠키」)

위의 예에서 “byvalo (i.past) ‘... 하곤 했다’”에 의해 과거문맥임이 분명한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은 전부 현재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rasskazyvaet (i.pres.)”에 보이듯이 불완료상에서마저도 그러하다. 과거문맥에서의 현재시제는 당시를 영화를 보여 주듯 생생한 회상을 보이는 역할을 하며 이것도 또한 전경화의 현저도를 높이려는 메카니즘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맥락을 떠나 한 문법범주 자체만의 현저도 측정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6)에서 보여지듯이 과거문맥에서 현재시제 완료상의 사용은 여러 연속되는 사건들 전체의 습관적 반복일 경우 특히 빈번하다. (36)을 다음 예문과 비교해 보자.

- (37) Ona vyšla, (p.past) obnjala (p.past) korovu, i legla (p.past) k nej na šejku.
'그녀는 나가서, (p.past) 소를 끌어 안고 (p.past) 그 소의 목에 기댔'

¹² 일반적으로 러시아어의 비과거(nonpast) 완료상은 미래시제를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 밝혔듯이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다. (p. past)

플롯의 연쇄성 면에서는 (36)과 (37)이 동일하다. 즉 현재시제 완료상은 반복이 아닐 경우 각기 과거시제 완료상으로 표현될 일련의 사건들이 반복이 되면서도 그 개별 사건들 간의 연쇄성을 잃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습관”맥락의 현재시제 완료상은 과거시제 불완료상보다 현저도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시제, 나아가서 무드(mood)와의 상호작용이라는 복잡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더 광범위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4. 결 론

相은 담화에서 전경화의 현저도를 조절하는 메카니즘 중의 하나이다. 완료상은 그 현저도를 높이는 쪽으로, 그리고 불완료상은 그것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그 현저도는 맥락의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완료상은 전경을, 불완료상은 배경을 의미한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현저도 조절 메카니즘으로서의 相이 다른 메카니즘을, 예를 들어 현저도를 낮추는 비인칭구문(impersonal sentences)나 피동구문에 비해 훨씬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또한 다같이 “주변의미”적이지만 “지속,” “반복”맥락의 완료상이 “종결” 맥락의 불완료상보다 더 많은 제한을 받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언어는 일반적으로 현저도를 낮추는 메카니즘을 더 발달시키고 있는 것 같다.¹³

앞으로 배경이론적 접근의 과제는 相이 다른 문법범주들, 예를 들어 시제, 무드, 태(voice), 타동성, 명사범주 등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궁극적으로 그 상호작용이 담화내에서의 전경, 배경을 이루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내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단순한 과거시제 이야기체를 넘어서 좀더 복잡한 다른 담화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문체학상의 기법(stylistic device)으로서 문학작품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Afanas'ev, A. N. (1978) *Narodnye russkie skazki*, 3 vol. Sovetskaja Rossiya, Moskva.

¹³ 이 점은 타동성(transitivity)나 태(voice)의 경우 더욱 확실하다. 인칭구문에 대해 유효적인 비인칭구문이나 능동구문에 비해 유효적인 피동구문이 현저도를 낮추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함에 비해 거꾸로 인칭구문화, 능동구문화에 의한 현저도 조절은 거의 불가능하다.

- Barentson, A. A. (1979) 'Review of *Towards a Theory of Aspect and Actionality in Slavic* by N.B. Thelin,' *Lingua* 49. 2-3.
- Bondarko, A. V. (1971) *Grammatičeskaja kategorija: kontekst*, Nauka, Leningrad.
- Chvany, Catherine V. (1984) 'Backgrounded Perfectives and Plot Line Imperfectives: Toward a Theory of Grounding,' monograph to appear in M. S. Flier and A. H. Timberlake, eds., *The Scope of Slavic Aspect*.
- Comrie, Bernard (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Forsyth, J. (1970) *A Grammar of Aspect: Usage and Meaning in the Russian Verb*,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Givón, T. (1984) *Syntax: a Functional Typological Introduction*, vol I.,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 Hoepelman, J. Ph. (1974) 'Tense-Logic and the Semantics of the Russian Aspects,' *Theoretical Linguistics* I.
- Hopper, Paul J. (1979a) 'Some Observations on the Typology of Focus and Aspect in Narrative Language,' *Studies in Language* III. 1.
- _____ (1979b) 'Aspect and Foregrounding in Discourse,' in Talmy Givón, ed., *Syntax and Semantics, Vol. 12: Discourse and Syntax*, Academic Press, New York.
- _____ (1982) 'Introduction to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Vol. 1: Tense-Aspect*,'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 _____ and Sandra A. Thompson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 2.
- Isačenko, A. V. (1968) *Die Russische Sprache der Gegenwart, Teil I: Formenlehre*, Veb Max Niemeyer Verlag, Halle.
- Jakobson, Roman (1971)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Selected Writings*, Vol. II, Mouton, The Hague.
- King, L. D. (1983) 'The Semantics of Tense, Orientation and Aspect in English,' *Lingua* 59, 213.
- Kučera, Henry (1983) 'A Semantic Model of Verbal Aspect,' in Michael S. Flier, ed., *American Contributions to the Ninth International Congress of Slavists, Vol. I: Linguistics*, Slavica, Columbus, Ohio.
- Lee, Chungmin (1982) 'Tense in Korean,' *Proceedings of the 2nd Japanese-Korean Joint Workshop on Formal Grammar at Kyoto*, ed. by Logico-Linguistic Society of Japan.

- Lunt, Horace (1974) *Old Church Slavonic Grammar*, 6th ed. and rev., Mouton, The Hague.
- Mourelatos, Alexander P. D. (1981) 'Events, Processes, and States,' in Philip J. Tedeschi and Annie Zaen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14: Tense and Aspect*, Academic Press, New York.
- Miller, J. (1972) 'Towards a Generative Semantic Account of Aspect in Russian,' *Journal of Linguistics* 8.
- Timberlake, Alan (1982) 'Invariance and the Syntax of Russian Aspect,' in Paul J. Hopper, ed.,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Vol. 1: Tense-Aspect*,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 Uspensky, Boris (1973) *A Poetics of Composition*, Trans. by Valentin Zavarin and Susan Witti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Vendler, Zeno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 Vinogradov, V. V. (1972) *Russkij jazyk*, 2nd ed., Vysšaja škola, Moskva.
- Wallace, Stephen (1982) 'Figure and Ground: the Interrelationships of Linguistic Categories,' in Paul J. Hopper, ed.,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Vol. 1: Tense-Aspect*,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ABSTRACT

Discourse Function of Aspect in Modern Russian: Ground Theory Revisited

In Young Lee

Study of Russian aspect has been mainly concentrated on the "interpretive method" to establish the invariant meanings of aspect at morphosemantic level. This approach, however, is not very helpful to make clear objectively the intuitive cognition that aspect plays a certain role at discourse level. In this respect, the recent approach through Ground Theory made a considerable contribution. In this paper I discuss problems of Ground Theory and try to clarify that aspect and foreground/background are not directly related but

indirectly through the filtering of contextual meanings. For this purpose, I analyse the cases, where there are conflicts between contextual and prototypical meanings, i.e., the imperfective aspect in “terminative” context, the perfective aspect in “durative” and “iterative” contexts.

15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접수: 1985. 11. 4.)